

로컬플러스

부안서림지구대 농산물 절도예방

수확기를 맞아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가 농산물 절도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서림지구대는 농산물 보관창고 등 농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범죄 취약지를 선정, 순찰선에 편입해 집중순찰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림지구대는 취약지구대인 심야시간대 농산물 출하 이동으로, 집하장 주변, 타 지역 경계에 대한 검문검색으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강종삼 지구대장은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농산물 절도예방, 방범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는 앞으로 9월에는 시남송콘서트, 10월에는 ‘검산초와 함께하는 향교여행’, 11월에는 ‘소소한 김제나눔 행사’ 등을 진행하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사를 연이어 나갈 예정이다.



부안군, 뇌건강 경로당 스타선발

부안군이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읍·면 대표 경로당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뇌 건강 스타 경로당 선별대회를 가졌다.

부안군은 이번 대회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8개 읍·면 취약경로당에서 주 1회 총 64회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회는 12개 읍·면 경로당이 참가해 기억력, 언어능력, 사고력, 치매예방체조 등 4종목으로 진행됐다.

대회결과 치매 없는 행복 빌리지 역귀미을 최고 최고!!’라는 슬로건으로 출전한 부안읍 역귀경로당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조기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선도 치매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예술길로 함께 문화재 주민공감

김제시, 지역주민과 함께 향교에서 전통예절 익히고 동헌에서 문화재 탐방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4월부터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화목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주민공감정책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문화재 정책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제시’와 ‘김제제일사회 복지관’이 손을 맞잡고 2년 연속 공동으로 당선된 바 있다.

우선 4월에는 김제제일사회와 폴리텍대

학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동화가 있는 피울벽화(우아 좋은 형제들)를 조성하였고, 5월부터는 화요일에는 향교에서 전통예절과 전래놀이 및 원예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동헌에서 김제문화원 문화해설사로 어르신들과 함께 문화재탐방길 체험 등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5월에는 김제향교와 손을 잡고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통과의례인 성년식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재 대청소를 진행하여 깨끗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였다.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4월부터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화목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주민공감정책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문화재 정책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제시’와 ‘김제제일사회 복지관’이 손을 맞잡고 2년 연속 공동으로 당선된 바 있다.

우선 4월에는 김제제일사회와 폴리텍대

화 등을 여려 기관과 연계하여 동화가 있는 피울벽화(우아 좋은 형제들)를 조성하였고, 5월부터는 화요일에는 향교에서 전통예절과 전래놀이 및 원예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동헌에서 김제문화원 문화해설사로 어르신들과 함께 문화재탐방길 체험 등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5월에는 김제향교와 손을 잡고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통과의례인 성년식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재 대청소를 진행하여 깨끗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였다.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4월부터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화목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주민공감정책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문화재 정책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제시’와 ‘김제제일사회 복지관’이 손을 맞잡고 2년 연속 공동으로 당선된 바 있다.

우선 4월에는 김제제일사회와 폴리텍대

정읍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자 공개모집

정읍시, 채권·채무 인수 조건

정읍시가 소성면 주천리에 위치한 정읍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정상화를 위해 채권·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신규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정읍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지난 2010년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물류창고와 사무실 등을 갖추고 2011년 11월 7일 개장됐

다. 하지만 운영 주체인 전북 정읍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2015년 8월 10일 해산 명령됨에 따라 청산단계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물류센터를 매각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 정읍시 홈페이지

(<http://www.eongup.go.kr>)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규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10월 20일이다.

참가 자격은 중소도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 도매와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등록 소재지가 정읍시 지역이나 주사무소가 정읍시에 소재하는 단체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소통한마당’ 성황리 개최

정읍시, 정읍단풍미인조합사업법인과

정읍시와 정읍단풍미인조합사업법인(대표 이정진)가 지난 21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1주년 기념 소통한마당’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참여조합, 그리고 품목별 공신출하회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행정, 지역농협, 정읍조공, 참여농가가 어울려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심의 위원회를 가졌다.

심의회에서는 대거 물려들 것으로 예상으로 행락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했다.

이날 참여기관은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구절초를 감상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맑은 업무와 관련,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안전하고 없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내장산 단풍시기와 연계돼 열리는 제20회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와 제27회 정읍사 문화제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는 흥겨고 재미있는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리로 마련됐다. 정읍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북면 화해리 69-9번지 일원에 들어서 있다.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됐고 1만2천 796㎡부지에 건축면적 3천266㎡의 지상 2층 규모로 짐하장과 선별장, 차운 저고, 사무실 등을 갖췄다.

또 선별포장기와 위생설비, 유통장비 등 현대화된 설비를 구비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원예농산물을 집하장에서 선별, 포장 출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행정, 지역농협, 정읍조공, 참여농가가 어울려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심의 위원회를 가졌다.

김제시 금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난타 등 면민들에 ‘호응’

김제시 금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모의예술단(단장 박민성)이 오는 24일 오후 1시 금산면 회평마을에서 ‘재능기부 공연한마당’을 펼친다.

모의예술단은 금산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난타교실로 시작하여 난타, 풍물을 비롯한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등 다양면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으로 국인 김덕수의 제자 박문기 강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심도 깊은 예술적 소양을 쌓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소외지역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위해 모의예술단이 자

체적으로 진행하는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기준에도 금산면민의 날 행사, 원농집강소 공연을 비롯한 10여개 마을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열어 면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민완 금산면장은 “모의예술단원들이 비쁜 업무에서도 농시일반분이나 공연준비에 매진 하며 금산면민들을 위한 신명나고 흥겨운 공연을 준비했다”며 “한번만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재능기부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마련해준 모의예술단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어린이대상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21일 교육장을 비롯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교통경찰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의식 개선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니 걸리다)의 중요성을 초등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운전자의 기본의무’라는 것을 주시시키기 위해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찾아가는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옥순)는 22일 출포중학교(교장 황호길) 강당에서 출포중학교 학생과 출포초등학교(교장 윤미숙) 5·6학년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해 청소년 봉사활동 정보 제공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출문 시간을 보냈다.

출포중학교 권보미 교사는 “학교에 직접 찾아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옥순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소년들의 나눔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더덕재배 실증시범사업 평가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더덕재배 실증시범 사업 관련 현장교육과 평가회를 가졌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더덕재배 실증시범 사업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고품질 더덕을 생산, 이를 활용해 점을 대표 음식으로 개발하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술센터는 실증시범사업으로 올해 2개소 6500㎡에 더덕을 재배했다. 노동력 절감과 빌아울 향상을 위한 ‘씨비닐 과정’과 투광망 증대를 통해 고품질 더덕 생산을 위한 ‘삼각형 지주 설치’, 그리고 2년간 사용 가능한 유인망 설치를 통한 매년 불 유인망 재설치에 따른 노동력 절감 등을 실증했다.

이날 평가에서는 아들 실증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농업인들은 빌어들이 저조하고 후기관리가 어려워 쉽게 면적을 늘리지 못했던 점을 보탰다.

특히 올해 7월 중순부터 이어진 가뭄에도 좋은 생육을 자랑하는 시범圃를 둘러보고 “2, 3년생 재배를 통한



연차에 따른 더덕의 생육상태, 2년생이 더 많이 굽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재배기술 정립과 꾸준한 현장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센터는 이후에도 2~3년에 걸쳐 평야지 재배기술 정립과 확대 보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덕은 토성이 깊고 부식질이 많으며 모래와 점토가 균형을 이루며 4~6 정도의 약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좋고, 잡뿌리 발생이 적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농협과 한림수협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수협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김제농협, 선상 식사용으로 쌀 공급

한림수협과 업무협약… 연 40억 매출기대

김제농협과 한림수협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수협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제농협 고성곤 조합장, 한림수협 김시준 조합장, 좌회식 상임이사, 김제성 상무, 이광진 상무, 김제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제주시사업소 김진성 장장 등이 참석하였다.

김제농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림수협 조합원이 출현시 선상 식사용으로 사용하는 식구미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약 40억 원의 매출액 신장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에 김제시의 협조로 지평선축

제장에 한림수협의 홍보부스 개설하고 김제농협은 홍보와 수산물 판매를 돋기로 했다.

고성곤 조합장은 올해 양호한 날씨로 쌀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벼 재배 조합원과 농업인의 어려움이 걱정된다며 다양한 판로경로를 확보하여 우리 지역 쌀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제농협은 김제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시사업소